



[녹] 연중 제30주일

2024년 10월 27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사목회의

매월 2째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사목회장

박정례 에스더
estherjeongpark@gmail.com
704.208.9006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421 봉헌 216 성체 499,498 파견 271

• 제 1독서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31,7-9

• 화답송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 - 리는 기 - 뻘하였네

• 제 2독서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5,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 복음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0,46ㄴ-52

Christ Healing The Blind By Nicholas Poussin



Lessons from the Healing of Bartimeus Rev. Innocent Amasiorah

He was a blind man who had been in his situation for years. He never thought he would ever see again. But one day while he took his usual spot for begging, since he would not fend for himself again in any other helpful way, he was granted his heart's utmost yearning. He never knew that the same spot which represented his agony would some time become his place of exultation or, call it, his resurrection garden. It started when he noticed an unusual crowd traffic around him. He was curious. He asked what was going on, and he was told that Jesus was passing by. He might have heard about Jesus before then or not. But the way he addressed Jesus was indicative that he wasn't ignorant of him. Besides, Jesus' fame had gone all over the region, as the Scripture always testifies. Would the blindman have wished for an opportunity to meet Jesus? We don't know. But even if he did, those were mere wishes. How could he reach Jesus, knowing he was blind and helpless and seeing today that no one was willing to help him?

Yet, there came a day when the grace of God discovered him. As Jesus passed by, he cried out,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Jesus moved on as if he didn't hear him pleading to be healed. Bartimeus was undeterred and unrelenting. The crowd tried to hinder him. They stood between him and Jesus. They shouted him down and told him that Jesus wasn't interested in his condition; that Jesus would not listen to him, and that he should, therefore, shut up and bother Jesus no longer. But the more they tried to intimidate him, the more Bartimeus raised his voice beyond the crowd and shouted even louder. So, Jesus stopped and demanded that he should be brought to him. The blind man immediately sprang up and began to go to Jesus. He threw off his cloak and would not let anyone hold or lead him. After all, these were the same people that wanted to stop him. The throwing aside of his cloak represented a choice of a new life in Jesus. St Paul advises that, since you have now believed in Christ, you are to put off the former way of life, the old man (you) which is being corrupted according to its desires (Eph. 4:22).

My brothers and sisters, pray that your day of blessings would come so that all those who tried to stop you would turn around and wonder how good God had become to you. Did you also notice that before the miracle Jesus suspended everything he was doing and focused on Bartimeus. Come to think of it: "Jesus stopped" to wait on the blind man. I interpret this gesture to mean that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was still for the blind man who never gave up crying to Jesus for help, despite the unsurmountable obstacles. Are you willing to look away from the crowded trials and challenges, sickness, failures, mistakes, guilt, oppositions, disappointments around you and focus on Jesus alone without giving up?

4 페이지에서 계속

바르티메오는 오랫동안 눈먼 거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평소 구걸하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 자리가 언젠가 그의 기쁨의 장소, 즉 부활의 정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고, 궁금해져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항상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눈먼 남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원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소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가 눈이 멀고 무력한 상황에서, 오늘날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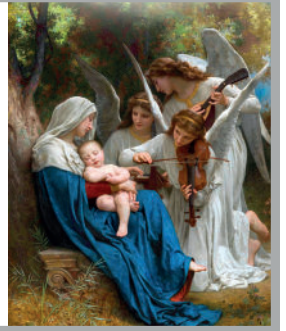
그러던중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티메오를 발견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달라는 그의 간청을 듣지 않은 듯 지나가셨습니다. 바르티메오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예수님 사이에 서서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만 입 다물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압박이 커질수록, 바르티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르티메오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눈먼남자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을 벗어던지고, 누구에게도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음을 던져버린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옛 생활을 버리고, 욕망에 따라 타락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22)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막으려 했던 모든 이들이 돌아서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놀라워할 것입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바르티메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셨다" 는 것은 예수님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눈먼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수많은 시련과 도전, 질병, 실패, 실수, 죄책감, 반대, 실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여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주일미사 후 삼종기도 바치기
 - 입당성가 2절까지 부르기
 - 성당 안에 들어오시면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령 성월 안내
 - 11월은 위령성월의 달입니다. 미사 전 다 함께 위령 성월기도를 바치겠습니다.
3. 의무 대축일 미사 안내: 모든 성인 대축일
 - 일시 : 11월 1일(금) 오후 8시
 - 11월 1일은 하늘 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전례력에 축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미국 가톨릭 교회의 6개의 의무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축일에는 미사 중에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4. 성시간 안내
 - 일시 : 11월 1일(금) 미사후
5. 위령미사 안내
 - 일시 : 11월 2일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Forest Lawn East Cemetery
 - 주소 : 3700 Forest Lawn Dr, Matthews, NC 28104
6. 성지 순례 안내
 - 장소 :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모님 발현지
 - 일정 : 10월21일(월) ~ 10월 31일(목)
7.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Rev. Innocent C. Amasiorah
 - 일시 : 10월 27일(일)
8. 평일 미사 취소 안내
 - 일시 : 10월 30일(수)
9. 2차 현금 안내 : 사제 양성 후원 현금
 - 목적 : Seminarian Education Collection • 일시 : 11월 3일(일)
10. 봉성제 안내
 - 일시 : 11월 8일(금) 오전 11시 • 문의 : 최옥만 마리아
11. 2025년 주소록 제작 협조 안내
 - 사목평의회 위원장 : 위원회별 사목계획서와 행사계획표
 - 구역 위원장 : 새로 오신분, 주소록에 없는 분들 명단 및 사진
 - 평신도 단체장 : 행사계획표
 - 상임위원회: 사목계획서, 행사계획서, 광고신청 접수
12. Trunk or Treat
 - 일시 : 10월 27일 미사후 • 대상 : 모든 어린이들
 - 친교실 바로 앞 주차공간은 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 미대선 투표소 설치 : 성당 친교실
 - 11월 5일(화)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성당 친교실이 투표소로 사용됩니다.
14. 줌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
 - 주제 : "위령성월과 그리스도인의 삶"
 - 일시 : 11월10일(일) 오후 8시
 - 강사 :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대전교구 보좌주교)
 - Meeting ID : 813 360 8420
 - Password : 12345
15. Daylight Saving
 - 일시 : 11월 3일(일) 오전 2시



미사 참례자 수: 10 월 20 일 (118 명)

우리들의 정성

주일 현금	\$ 1,048.00	DSA	\$ 430.00
교무금	\$ 1,868.00	2차 현금	\$ 419.00
건축 현금	\$ 467.00	도네이션	\$ 6,000.00
매일 미사	\$ 196.00	총액	\$ 10,418.00

- **교무금** : 김홍철, 양기예, 박은표, 한은경, 박봉철, 박하원, 김중섭, 이근모, 길세웅, 이창수, 조철희, 권영재
- **DSA** : 양기예, 구경태, 길세웅, 권영재
- **친교 기금 도네이션** : 신부님 • **놀이터 기금 도네이션** : 안정진

생 미사	김명숙가정	
연 미사	신종석 요안	
병중에계신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신완식 안드레아, 장상원 미카엘	
전례	구역/일시	전례 담당
연중 제 30주일	5구역 10월 27일(일) 10:30am	• 해 설: 박은표 • 독 서: 정규승, 정재환 • 기도: 김정숙, 한미나 • 봉 헌: 모정순, 김순녀
연중 제 31주일	6구역 11월 3일(일) 10:30am	• 해 설: 길세웅 • 독 서: 우귀숙, 김인순 • 봉 헌: 오해수, 오화자

When Jesus asked Bartimeus what he wanted him to do for him, he pleaded that he wanted to Jesus to restore his sight. He knew exactly what his greatest problem was, blindness. Ask anyone which of their senses they are least prepared to lose. Certainly, everyone would say it is the sense of sight. Some people would even prefer to lose everything they had instead of getting blind. This goes to underline the value of the sense of sight to a human person. That was the same with Bartimeus and might even be worse if we consider that he seemed to have lost his sight sometime in his life. We can, therefore, appreciate the enormity of what Jesus did for him. It was like giving him back his life in full. Up until that time, he was still carrying a burden no one would ever want to carry. He was apparently half alive. But with the restoration of his sight, he could begin to live his full life again. His gratitude to Jesus must have known no bounds. The Lord had also said in John 10:10 that,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fullness of life."

Bartimeus was an example of persistent prayer and, paradoxically, he was blind but more visionary than the people who could see. He saw an opportunity to be healed and grabbed it. First, though blind, he noticed an unusual crowd traffic around him. He asked what it was all about and was told Jesus was passing by. He acted at the spur of the moment. He cried out to Jesus for help. It is interesting how he waited for no one to do that for him. This could also mean that salvation is a personal journey with the Lord. You don't expect anyone to do it for you, but people can do it with you. Despite how heavy your burden could be on you; you can still stumble along like the blindman to Jesus who alone can remove the burden from you. The interesting thing here is that Jesus is waiting for you to come, just as he waited for Bartimeus. Everything else is suspended just for you, just for us to approach.

For Bartimeus, his journey was becoming illusive and more difficult each time he cried out, but he never yielded, nor did he give up on his prayer. Even when response from Jesus became apparently impossible, he remained steadfast. In the end, he surmounted all difficulties obstructing his efforts to be healed and he received his healing. Why would you want to give up on your efforts, your prayers, on your good life and good deeds, because of opposition, or because you felt that Jesus seemed to be passing you by without saying a thing? Did you consider that Jesus might want to see if you really meant what you were doing or not? Or that he might want to see you try harder? Are you sure you want to stop doing the right thing because of opposition, because the crowd is against you? In the kind of society we are, are we supposed to give up to those who are against our spiritual and physical wellbeing just because their voices are louder? Bartimeus refused. He raised his voice, too. He persevered, just as the Lord teaches that whoever perseveres until the end will be saved. Let us go home and do likewise.

Amen.

예수님이 바르티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시력을 회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감각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력을 잃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바르티메오도 그와 같았고, 그가 한때 시력을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르티메오에게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그의 삶을 되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반쯤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0:10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티메오는 끈질긴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시각이 없었지만, 실제로 볼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그는 치유받을 기회를 보았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눈먼이었지만, 그의 주위에 이상한 군중이 몰려 있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아무도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주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바르티메우스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짐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바르티메오를 기다렸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르티메오의 여정이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응답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과 기도, 선한 삶과 선한 행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반대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반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해서 굴복해야 할까요? 바르티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목소리를 높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 이와같이 행합시다.

아멘.